

# 광주시교육청, 위탁채용 미참여시 지원 중단

### 학급수 감축에 예산편성·재정지원 감점...참여학교는 혜택 사립학교 측 "대화·타협 없이 강요" 반발...교육계 혼란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사건 이후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광주지역 사립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하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급수 조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탁 채용을 거부한 학교부터 학급수를 감축하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과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감점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위탁 채용에 참여한 학교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와 재정지원 사업에 가점을 주고, 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해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당근과 채찍"으로 사립학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위탁 채용에 참여한 사립학교도 증가했다. 이날 현재까지 위탁 채용 의사를 밝힌 곳은 광주 지역 전체 사립학교 36곳 중 16곳으로, 지난해(6곳)에 비해 10곳이 늘었다. 채용 인원도 19명에서 60여 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학교

가 증가한 것 역시 비위 사건 등으로 관선 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이 대부분이며, 협박 수준의 시교육청 강요 때문이라는 게 사립학교측의 주장이다.

광주시학법인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채용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맞춰 권한을 내려놓는 등 양보하려해도 시교육청은 시행방식을 정해 일방적으로 강요만 한다"며 "사립학교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일방적 행보에 일선 학교책임자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이) 지금까지 강압적인 방식을 고수할 경우 달라진 것은 없고 교육 현장만 엉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시교육청, 고려고 특별감사자료 공개 수사 협조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특별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북부경찰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경찰이 학교에서 성적조작과 상위권 학생 특혜제공이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감사를 통해 각종 성적 조작 행위 등을 적발한 뒤에는 학교책임자

에 대한 추가 고발도 하지 않아 '뱀주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광주일보 2019년 8월28일자 7면>

시교육청의 감사자료 제공에 따라 고려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살펴 학교책임자의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학교의 조직적인 성적조작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고, 불법 찬조금, 부정정탁·금품수수 의혹 등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정병호 기자 jusb@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2	달뜨기	04:09
해질	19:04	달질	18:30

가을바람 솔솔~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22/28	보성	흐리고한때비	20/26
목포	흐림	22/27	순천	흐림	22/27
여수	흐리고한때비	21/26	영광	흐림	21/28
나주	흐림	21/28	진도	흐리고한때비	20/27
완도	흐리고한때비	21/26	전주	흐리고한때비	21/28
구례	흐림	21/27	군산	흐리고한때비	22/29
강진	흐리고한때비	21/26	남원	흐리고한때비	20/27
해남	흐리고한때비	20/26	흑산도	흐림	22/27
장성	흐림	20/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0~2.0	남서~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2.0	북~북동	1.0~1.5

◇ 생활지수

위험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38 18:39	01:05 13:08
여수	간조	만조
	02:06 14:09	08:06 20:43

◇ 주간 날씨

30(금)	31(토)	9/1(일)	2(월)	3(화)	4(수)	5(목)
☀	☀	☀	☁	☁	☁	☁
20/28	20/29	20/29	21/27	22/29	22/29	23/29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남구, 영세아파트 역차별 해소 경로당 3곳 신설

광주시 남구가 영세아파트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3곳의 경로당을 새로 만든다. 남구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영세 아파트 중 세대수가 적어 경로당이 없는 3곳의 영세 아파트에 소규모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주민 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3곳의 아파트가 이미 오래전에 건립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아파트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각각 8~10평 크기의 소규모의 경로당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전에 소규모 경로당이 신설되는 영세 아파트 단지는 월산동 송광맨션(36세대)과 방림동 금원아파트(100세대), 진월동 진월아파트(135세대) 3곳이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대,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추가 발굴

###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20여명...미전수자 10여명 확인중

전남대학교가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을 추가로 발굴했다. 전남대 김재기(정치외교학과, 재외한인 학회장) 교수는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을 맞아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의 공로로 서훈에 추서됐으나, 전수가 안된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 20여명을 추가 발굴해 발표했다.

김 교수가 발굴한 쿠바지역 서훈 미전수자는 박창운(애족장), 임병일(건국포장), 이우식(건국포장), 이인상(건국포장), 김치일(건국포장)로, 이들 후손들을 미국 LA, 샌디에고, 마이애미에서 찾아냈다.

또 멕시코에서 활동한 이영순(애족장), 신광희(애족장), 이종오(건국포장), 김대순(건국포장), 박춘삼(건국포장), 김용걸

(대통령표창), 고희민(대통령표창), 김태식(대통령표창), 김성택(대통령표창), 공덕운(대통령표창), 공인택(대통령표창), 이명원(건국포장, 전수), 유진태(건국포장), 유순명(건국포장), 이순여(대통령표창), 김원원(대통령표창) 등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미국을 비롯해 멕시코의 메리다와 티후아나, 멕시코시티, 후아레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함께 현재 김기창, 이근세, 이돈의,

김성민, 김봉학, 김삼옥 등 미전수자 10여명을 확인 중이다.

김 교수는 방학을 이용해 학생들과 함께 서훈 미전달 해외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난해에 15명을 찾아낸 바 있다.

김 교수는 "우선 LA 총영사관과 멕시코 대사관 등이 재외한인들을 찾아가는 따뜻한 보호 외교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미국, 멕시코, 쿠바 등 북미지역에 흩어져 있는 서훈 미전수자 및 미 서훈자를 전문가들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희중 기자 chae@

## 전남대, 4차산업 준비 'AI융합대학' 문 연다

### 9월1일...단과대 신설 15년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상징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이 9월 1일 문을 연다.

창립, 도시재생 등 광주 전남의 미래전략산업 분야에도 융합전공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남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15년 만이며, 로봇, 미래에너지, 빅데이터금융, IoT인공지능의 4개 융합전공이 들어서게 된다. 미래자동차, 헬스케어, 문화기술(CT), 영농

AI융합대학의 교수진은 공대뿐만 아니라 경영대, 자연대, 농생대, 법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짜여졌으며, AI나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에 영입할 계획이다. 문제중심 교육, 선행학습과 토론, 실사구시형 참여교육 등 최신키법의 교육과정도 도입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특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